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장학주일 및 교육부서 헌신의 주일

일시 : 2025년 2월 16일(주일) 오전 11시 예배
대상 : 이종빈 학생, 한태민 학생
특송 :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하나인 소개

3.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

다음 주일은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4. 예배 반주 섬김 (박제연 집사)

오늘부터(2.16) 주일 오전 11시 예배의 반주는 박제연 집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5. 연말정산/기부금 영수증 신청

2024년 연말정산서/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성도님들께서는 담임목사 개인톡으로 신청서(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봉 한지석 이광근 정지혁 오동영 임명숙 임명자 신규하)

6.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中), 이다남(병가), 박영대(병가), 임명순(무릎인대파열)

7. 2025년 2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1.4 ~ 2.1)

2/02(목)-한정일 성도(-1.5) 2/03(월)-김혜숙 권사(-1.6) 2/06(목)-임명숙 집사
2/08(토)-전가운 어린이 2/10(월)-공은주 어린이 2/21(금)-문수인 어린이

찾아오시는 길 / 매곡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2/16 임명숙 집사
2/23 김혜숙 권사
3/02 정애자 권사
3/09 박제연 집사
3/16 이광근 안집사
3/23 임명자 집사
3/30 임명숙 집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2/16	장학주일(장학금 수여) 교육부서 헌신주일 (부서별 특송)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하나인 사역소개(박제연)
16~28	전교인 축복 대삼방
02/18	강가서 교역자회 2월 정기총회
02/20	성경통독 부흥회(아하브코업주관)
02/23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
02/25	아하브코업 홈스쿨 개강예배
03/01	찾날빛이 일석예배 (성전예시)
03/02	성령주일 / 산성변모주일
03/05	재의 수요일
03/09	사순절1주 / 태산자 작정1주
03/16	사순절2주 / 태산자 작정2주

주일 사랑 운행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탑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탑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당 후 진행)		



주사랑 8권 7호 | 2025년 2월 16일
창립 2017.11.25 | 주현 후 여섯째 주 / 장학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장/학/주/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1:17)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장 학 주 일)	인도:집례자
※ 목 도	이사야 11:1~5	다 같 이
※ 찬 송 가	찬 2장	다 같 이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56 시편 128편	다 같 이
찬 송 가	찬 449장	다 같 이
	(예수 따라 가며)	
대표기도		임명숙 집사
		(중고등부 부장)
※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3:14~17	임명숙 집사
광 고		인 도 자
특 송 (1)	당신은 영광의 왕	유초등부
특 송 (2)	花も(꽃들도)	중고등부
사역소개	하나인 성경공부	유초등부
장학금수여		중고등부
말씀인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담임목사
봉헌찬송	찬 430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이재희 어린이)	
※ 축 도		담임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김혜숙 이광근 박제연 한성결 한승훈 임명순 한은총
주정헌금 :	김혜숙 문제효 박제연 이광근 오복상 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 한정완
감사헌금 :	박태성 이광근 박제연(자녀)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월삭감사 :	이광근 박제연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아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하락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한승훈 임명순
선교헌금 :	이광근 박제연 한승훈 임명순
구제헌금 :	이광근 박제연
건축헌금 :	이광근 박제연 한승훈 임명순 / 조남간 박윤미
후원헌금 :	독지교회 세한교회 조은교회 무명(하나은행) / 윤상봉 송주은
성 미 :	김혜숙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비전기도의

오후 1:0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여호수아 24:1~18 (구 357)
말씀제목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6:5~14 (신 149)
말씀제목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부모님 중
성경봉독	왕상 19:1~21 (구 549)
대표기도	자녀들 중
말씀제목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2:21~40 (신 90)
말씀제목	하나님 나라와 뜻에 집중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16일(일) 수 24:1~18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17일(월) 수 24:19~33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18일(화) 목 1:1~25	절망의 사대에 구원의 길
19일(수) 목 1:26~56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20일(목) 목 1:57~80	자기 백성을 찾는 하나님
21일(금) 목 2:1~20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주
22일(토) 목 2:21~40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집중
23일(일) 목 2:41~52	예수님의 성장과 승천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가타 기관 선교

오른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모통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고용마을

- ⑦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아련한 첫 사랑과 추억은 무엇인가요? (렘 2:2~3)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와 네 신혼 때의 ()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 ⑧ 남 유다 왕국은 그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를 답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두 가지 악은 무엇인가요? (렘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과 ()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 ⑨ 여호와께서 잿물로도 스스로 씻을 수 없는 남 유다의 죄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렘 2:22, 25)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갈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을 사랑하였은즉 () 하도다
- ⑩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일삼던 유다 왕국을 어떤 행위에 비유하셨나요? (렘 3:2~3)
네 눈을 들어 험벗은 산을 보라 내가 ()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 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의 낮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 ⑪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숭배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남 유다도 우상숭배를 일삼는 행위를 지적하시는데,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렘 3:14~15)
여호와와 말씀이나 배역한 자식들이 ()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하리라
- ⑫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아사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나요? (렘 4:1~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과 ()와 ()로 여호와와 함께 살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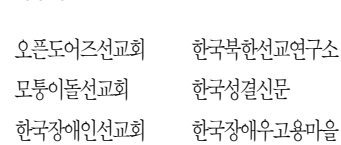
국내선교(오주교총함스쿨)



해외선교(모로코)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 ① 이스라엘의 남 왕국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의 시기 약 5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했던 눈물의 선지자는? (렘 1:1~3)
베냐민 땅 아나돗의 ()들 중 할기아의 아들 ()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십삼 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의 십일년 말까지 곧 오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 ② 예레미야를 선지자로써 하나님의 절대적 · 주권적 · 초월적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렘 1:5)
내가 너를 ()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 ③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렘 1:7~8)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 ④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의지를 알리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인가요? (렘 1:11~12)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이라 하시니라
- ⑤ 예레미야에게 알리시는 확실한 예언은 북방 민족을 통한 남 유다의 멸망임을 알리시기 위해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인가요? (렘 1:13~14)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를 보나이다 그 뿔뿔이 ()에서부터 ()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 ⑥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렘 1:18~19)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임이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에베소서 6:9)

한 아가씨가 스코틀랜드의 어느 주일학교에서 장난꾸러기 소년들만 모인 반의 담임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비>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쉽게 다룰 수 없는 골칫거리 아이였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이 여선생님에게 새 옷 한 벌을 가지고 보비의 집을 방문해 비보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섬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선생님이 보비의 집을 방문했을 때마다 보비의 모습은 잘 씻지 않아 땀물이 흐르는 얼굴에, 머리는 빗질을 하지 않아 헝클어져 있었고, 입고 있던 옷은 진흙에 뒹굴어서 걸레처럼 보였습니다. 여선생님은 그때마다 보비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보비는 또 더러워졌고 교회에도 잘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선생님은 보비를 방문했고, 엉망진창이 된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잘 타일렀다. 그러나 보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선생님은 진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은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 돌봐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여선생님을 격려했다. 그 여선생님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고삐 풀어진 망아지 같은 이 소년은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하여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 목사¹⁾>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중국어로 신약구약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는 1824년 17년 만에 조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서, 중국 선교를 위한 중국어 강좌를 개설했고, 이곳에서 “새무얼 다이어”라는 어린 학생을 만나 교육하게 되었는데, 그는 허드슨 테일러의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여성을 위한 특별 과정보도 운영했는데 훗날 중국으로 떠난 최초 여성 선교사 “메리 엘더시”도 여기서 배웠다고 합니다. 1834년 신구약 성경인 ‘신천성서’와 중국어사전 3권 등을 남기고 52세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위기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일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나 또 헌신을 받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해도 되는 일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한 단계 훌쩍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895	복조 바아사의 침입	왕상 15:17
찬송가		찬 335장	다	같이	895 제2차 남북조 전쟁	대하 16:1
대표기도		자녀	중	886	복조 엘라의 등극(~885)	왕상 16:8
성경봉독		왕상 20:1~12	말은	이	885 복조 시므리의 모반	왕상 16:16
말씀인도		참된 지도자를 주소서	부모님	중	885 오므리 왕의 등극	왕상 16:23
합심기도		다	같이	824	아합의 등극	왕상 16:29
헌금기도		찬 582장	말은	이	엘리아의 사역	왕상 17:1-24
주기도문		다	같이	860	아합과 벤하닷의 허무한 대결	왕상 20:1~12

■ 들어가는 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선지자 엘리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지만,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아보지도 못하고 결국 엘리아가 북이스라엘에서 도망가는 상황을 방치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바알 우상 숭배에 매진하는 이세벨의 바알 숭배를 금하지도 못합니다. 아합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아람의 왕 벤하닷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구역 성경에는 아람의 벤하닷이 3명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등장하는 아람의 왕 벤하닷은 1세이고, 열왕기상 20장은 벤하닷 2세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한 왕은 벤하닷 3세입니다. 아합 왕은 벤하닷이 공격하자 벤하닷이 요구하는 공물을 주고 속국 관계를 맺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벤하닷은 가족과 은금을 요구하는데, 속국관계를 맺으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으로 아합의 가족을 볼모로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는 백성도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과 백성을 향한 올바른 도덕성의 균형과 지혜를 갖춘 지도자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 자신의 체제와 권력 유지를 위해 굴욕적 항복을 수용하는 지도자는 위험합니다(1~6).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웃 나라의 침략과 강탈은 하나님의 심판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아합 왕은 갈멜 산에서 자신을 지지하던 바알 선지자의 세력을 모두 잃은 후, 아람 왕 벤하닷의 군사적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이는 엘리아에게 말씀하신 아합 왕조의 몰락의 조짐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 군대와 주변의 32개국 왕으로 구성된 연합군에게 포위되자 일시적인 항복을 넘어 아람의 모든 모욕적 요구를 수용하는 굴종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은금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가장 아끼는 후궁들’을 볼모로 보내라고 요구 합니다. 이런 벤하닷의 요구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벤하닷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하던 바알 우상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벤하닷을 더 두려워 했으며, 우상은 먹고살 만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일 뿐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임기응변적 선택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응답받는 기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치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벤하닷이 더없이 사악한 왕이라면 아합은 더없이 비굴한 왕이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수시로 말과 태도를 바꾸는 지도자는 위험합니다(7~9).

벤하닷은 조공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부하들을 보내 왕궁과 신하들의 집을 살살이 뒤져서라도 아합 왕이 귀하게 간주하는 것들을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만족을 모르며 파렴치하기까지 합니다. 악한 자를 향한 긍휼도 없습니다.

아합 왕은 지금의 이 상황이 조공을 바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 성이 점령 될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묻지 않고 나라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들여 ‘벤하닷의 침략이 악탈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자신 혼자 결정하고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여 장로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분노하며 왕은 듣지도 말고, 굴복하지도 말라고 강권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지혜와 힘만을 자랑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한 것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약자의 어려움을 돌봐주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충동적이고 무모한 대결을 선택하는 지도자는 위험합니다.

아람의 왕 벤하닷이 조약이란 이름 아래 거침없이 강도짓을 하려 하자, 아합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2차 요구를 거절합니다. 예상치 않은 반응에 벤하닷은 심사숙고할 여지 없이 공격 명령을 단행합니다. 사마리아를 먼지더미로 만들고, 사마리아에 포획할 것보다 자기 군사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선지자를 죽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나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참히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전쟁 불사 의지를 밝히자 벤하닷도 이에 화답합니다. 하지만 벤하닷은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장막의 술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두 나라의 왕 모두가 협상도, 중재도, 하나님께 물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지도자들의 허풍과는 달리 전쟁은 아무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최대한 보류해야할 전쟁 카드를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폭력입니다. 틈만나면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엄포하고, 자신의 체제 유지만을 위해 핵무장으로 세상을 위협하는 북한을 상대할 때, 한반도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음을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남북자유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맺음말

큰 영적침체에 빠져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한 엘리아의 상황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여전히 진행하십니다. 엘리아는 자신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과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에후를 각각 세우시고 권력을 주십니다. 엘리아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세워져가고 있음을 증언할 엘리아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넘치게 부여주십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등 뒤에 권력과 이권과 특실이 아닌 ‘국민의 행복과 생존’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선불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사악하거나 비굴한 지도자, 그리고 위협적이거나 굴종적인 이 시대에도 아합도 벤하닷도 아닌 참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넘치도록 이 시대의 하나님의 증인된 사역을 위해 교회가 새로워 질 수 있도록 기대해야 합니다.